



일주목

청정화합연대 사무실 개소
정각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월 27일 부산 데파트 3층 313호에서 사무실 개소식 겸 법회를 봉행했다.



'비른선거...' 서울총聯 회장
자용 수국사 주지는 2월 15일 열린 비른선거시민모임 서울시 총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참나 찾자...' 백일기도 회향
회정 진천 도솔암 주지는 2일 '참나찾기'를 위한 삼동결제 백일기도 회향식을 가졌다.



부산불교교육대 명예졸업
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2월 22일 부산불교교육대학 4층 교육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명예졸업패를 받았다.



불교방송 다보법회 법문
권기중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을 한다.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받아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2월 26일 부경대 체육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케이بلPD협 이사 선임
이수덕 불교TV 사장은 2월 27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케이بل PD협의 회 신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후원의 밤 행사
함종환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은 7일 오후 5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갖는다.



“초발심 회복 역점돌터”

부산불교실업인회 3대 회장 박수복 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침체위기를 맞은 실업인회를 활성화하고, 기업 운영, 대사회적 활동 등에서 수행을 근간으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실업인회를 만들 것입니다.”



2월 25일 열린 제12차 정기총회에서 부산불교실업인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수복(57·대륙금속 대표) 회장은 창립 당시의 초발심 회복을 취임 역점 과제로 삼고

다른 단체와 연계 활동강화

있다. 11주년을 맞은 실업인회의 창립회원인 박회장은 그동안 분과위원장, 감사, 부회장, 상임부회장을 거친 실무와 조직에서 인정 받아 온 일꾼이다.

들의 신심 증대에 힘을 계획이다. “수행하는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박회장은 수행을 통한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1년의 경륜을 토대로 10년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실업인회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박회장은 ‘회원 스스로의 수행’을 조직 활성화의 기본으로 잡는다. 이를 위해 삼사순례 법회로 정례화한 월례법회에 108매 참회, 법문, 참선 등 수행 프로그램을 가미시켜 회원

지난 1월 발족한 부산 청정화합 시민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박회장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제 조업체의 대표라는 약조건 속에서도 “146명 회원 전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불교실업인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천미희 기자

“‘고충빌딩’ 저지·중창불사 주력”

조계사 신도회 새 회장 이연숙 보살



이 회장은 신도조직 강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신도회 조직을 지역조직·수행조직·사업조직으로 특성화하고, 신도회의 보살행 강화하고, 각급 법회간의 벽을 허물어 화합하는 신도회를 만들 생각이다.

이 회장은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교구본사 신도회장들 간의 모임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어려이 되면 이 모임을 만들고

교구본사 신도회장들 모임 필요

“조계사 인근 고충빌딩 건립 저지를 비롯해 중창불사 등 조계사 대종들이 이루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싶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2월 22일 조계사 제16대 신도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연숙씨(64)는 무엇보다도 고충빌딩 건립 저지와 중창불사는 조계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한명우 기자

20년 넘게 조계사를 다닌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조계사 자원봉사 신행단체인 관음회 회장을 맡아 왔다. 1962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울산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태연 초·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회장의 남편은 불자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태호 의원이다.

“아름다운 인연 감사해요”

지담 스님의 숨은 보살행 3년



소년·소녀 가장 6명을 남 모르게 돕고 있는 한 스님의 이야기

공부하며 소년가장 6명 보살펴

“나누는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 포교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지담 스님(43)이 바로 그 주인공. 2월 21일 스님은 대학에 진학하는 정남(19)이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푼푼이 모아뒀던 돈을 선뜻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어린 손자 둘을 키우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보태주려고, 절집을 돌며 탁발도 했다. 그러나 정작 지담 스님의 행편은 부전생활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공부를 한다는 것. 이처럼 스님이 학생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아이들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감사해 하고 있다.

“본래 스님들은 ‘탁발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곳저곳을 돌며 시주받은 쌀을 아이들 집에 나눠주면 무척 기뻐들해요. 지난해에는 형과 단둘이 사는 중학생 영일이가 우등상을 받아왔는데 자랑을 늘어놓을 땐 마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뿌듯했답니다”며 스님은 즐거워했다.

안암동 중앙승가대 시절부터. “94년부터 5년간 서울불교 청년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인연의 끈이 작용을 했다 봅니다. 출가직 후인 99년 마침 개운사 신도님이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을 제게 소개시켜 주더군요. 평생 포교의 원을 세우고 출가한 제가 할 일이란 바로 이거구나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내기를 3년째. 나누는 기쁨만 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아이들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감사해 하고 있다. “본래 스님들은 ‘탁발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곳저곳을 돌며 시주받은 쌀을 아이들 집에 나눠주면 무척 기뻐들해요. 지난해에는 형과 단둘이 사는 중학생 영일이가 우등상을 받아왔는데 자랑을 늘어놓을 땐 마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뿌듯했답니다”며 스님은 즐거워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달라이라마 방한추진 감사”

티베트 링 린포체 스님 ‘방준위’ 방문



◀링 린포체 스님(왼쪽)이 달라이라마방준위에 칼라차크라 탱카를 전달하고 있다.

동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링 린포체 스님이 2월 25일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를 방문,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링 린포체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어릴적 스승이자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전대 링 린포체 스님(83년 열반)이 환생한 현신(現身)으로, 87년 달라이라마와 고승들로 구성된 추대위원회에서 왕사로 추대됐다. 링 린포체 스님은 이날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달라이라마의 ‘한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긴 천서와 티베트 최고의 관정(觀聲)을 담은 탱화인 ‘칼라차크라 탱카’를 방준위에 전달했다

2월 22일 입국한 링 린포체 스님은 구룡사(2월 24~26일)에서 법회를 가졌으며, 27일에는 동도사를 방문, 방장 율하스님을 친견했다. 링 린포체 스님은 6일 출국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a.com

“상 받은 생도 8명중 4명 불자”

해수 졸업식 화제... 대통령상·국방부장관상 등



◀사진 왼쪽부터 박경원, 권준문, 오동식, 이영구 생도.

2월 27일 열린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대통령상, 국방부장관상, 합동참모의장상, 해병대사령관상을 받은 주인공들이 모두 불자여서 관심을 모았다. 전교생 중 8명에게만 주어지는 포상에 전교 수석자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영구(전산학과) 생도를 비롯 국방부장관상 박경원(전자공학과) 생도, 합동참모의장상 권준문(경영학과) 생도, 해병대사령관상 오동식(해양학과) 생도 등 범우회 소속 생도가 4명이나 포함된 것. 대통령상을 받은 이영구 생도는 “힘든 고비마다 법당을 찾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대통령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임관지에 가서도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경원 생도 또한 “부처님 법을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 수상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진해=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장학금 전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해월)은 2월 23일 광주지원 법당에서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교생 소년소녀가장 58명에게 2천2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1월 27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주최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4회 한마음선원 어린이 불교 합창제에서 모금된 성금이다.



평불협 창립 10돌 기념법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대표 법타)는 2월 22일 한국일보 송현를 법에서 창립 10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은혜사 주지 법의 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타 스님은 “10년이라는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 10년에는 남북불교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엄불교대학 13기 졸업식

전주 화엄불교대학은 2월 16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제13기 화엄불교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전주 포교사회 김해수 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학장 평상 스님은 “부처님을 대신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웃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불자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월 27일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불교합창단연합회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임명패 및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서정화 화계사 불교합창단장이 신임회장에 임명됐다.



한국불교법사대 법사 품수법회

서울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월 2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0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개최했다. 대승종 종정 도암 스님, 입제종 종정 용화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철 법사대학장은 “넉넉한 마음으로 헌신봉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유해 능히 자기 자신을 이기는 보살이 될 것”을 당부했다.

법공 스님 입적 도안사 조실



서울 도안사 조실 법공스님이 2월 27일 세수 85세, 법랍 68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다비식은 1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운경스님 문도회장으로 치러졌다

법공스님은 1918년 서울에서 태어나, 35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49년 동국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64년부터 82년까지 법주사 백양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에서 강사를 역임하며 한영 스님의 강맥을 이었다. 한명우 기자

인사

△일민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원장=김무생 △경영대학원장 겸 교육대학원장=배도순 △기회조정실장=오영호 △교무처장=홍충현 △인학학성처장=한신조 △행정처장=홍정준 △회당학술정보원장=김대수

Advertisement for TG 반도체 (TG Semiconductor) featuring large text '미수터라'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cross Korea.